



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와 중요도

최라운¹, 권영란²

¹광주보훈병원 간호사, ²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

Nurses' Perception of the Task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Paid Caregivers in General Hospitals

Choi, Ra-Woon¹ · Kweon, Young-Ran²

¹Registered Nurse, Gwangju Veterans Hospita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the task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paid caregiv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95 nurses working at three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4 to 13, 2013,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ith SPSS 20.0 program. **Results:** 81.5%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perceived the necessity of paid caregivers. Difficulty in delegating tasks to paid caregivers was reported by 63.6% participants. Difficulty in delegating the task to paid caregivers because of a lack of time and resources was reported by 87.2% participants. The nurses rated the paid caregivers' task performance at 3.59 out of 5.00; the degree of importance of paid caregivers was rated 3.81 out of 5.00. The areas of high nurses' perception about task performance of paid caregivers were infection control aids (4.71±0.45), eating aids (4.20±0.73), body cleaning aids (4.18±0.77), and movement aids (4.16±0.77). The areas of high nurses' perception about task importance of paid caregivers were infection control aids (4.71±0.45), movement aids (4.24±0.75), eating aids (4.17±0.76), and body cleaning aids (4.16±0.7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work instructions for the nurses fo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work activities of paid caregivers in the future.

Key Words: Caregiver, Nurse, Delegation, Perception, Task performan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입원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가족 중 여성에 의한 돌봄이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기능

이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은 더욱 증대되었다[1].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에서 최근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넘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간호요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또한 건강문제를 지닌 노인 인구의 증

주요어: 간병인, 간호사, 업무위임, 인식, 업무수행

Received Jan 2, 2019 Revised Feb 11, 2019 Accepted Feb 21, 2019

Corresponding author: Young-Ran Kweo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61469, Korea. Tel: +82-62-530-4961, Fax: +82-62-233-6325, E-mail: yrk@jnu.ac.kr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ttp://crins530.jnu.ac.kr>

가는 과거 치료 중심의 병원 서비스를 간호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1년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 간호사 수인 8.8명보다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3]. 간호 인력의 부족은 돌봄 제공자로서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간병인, 영양보호사,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양성하도록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간병인은 병원에서 주로 활동하는 돌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자격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4].

Hwang [1]의 조사에 의하면 간병인 교육기관의 교육생 배출인원은 전국에 약 247,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병원은 약 7,500여개이다. 이런 조사를 통하여 실제 많은 병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병인의 이용은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해 주고 환자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그 가족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입장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간병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4]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병인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들의 업무규정 및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병동에서조차도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1].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간병인이 간호 보조업무 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행위를 혼재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간호사들 역시 간병인의 전문 간호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이런 상황은 병원 내 간병인 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학적 합병증 발생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병원 행정적으로는 병원 물품의 소모 및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간병인을 해

고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6]. 또한 간병인 활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결국 간병인의 환자 돌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간호사의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다[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간병인 활용을 공적 부조로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총 10개의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3]. 간병인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7]에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기준 설정, 업무의 표준화, 재원 마련 및 업무의 질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간병인 활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뤄진 이 시점에서 간병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가 직면한 큰 과제는 간병인을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관한 부분이다[8]. 그러나 현재까지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병인 업무와 관련된 인식을 확인한 연구로는 간병인에 대한 인식 조사[9], 간병인의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6] 등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관한 연구[5]가 이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료 간병인의 업무 수행도와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실제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역할 규정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성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중요성을 파악한다.

셋째,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성의 인식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간병인

간병인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주간 보호나 간호적인 일을 하는 자, 건강에 관여하는 자, 노인을 돌보는 일에 관계하는 자, 또는 양육이나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는 자를 말한다[10].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가정간호와 노인 간호에 관한 교육을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는 전문 간병인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합병원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대신하여 일정의 보수를 받으면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2) 간병업무

간병업무라 함은 간병인이 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직무내용에 관한 것으로 식사, 옷 입기, 목욕, 배설 및 보행 등의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인 일상생활과 쇼핑,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을 돕는 것을 말한다[11].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들이 사용하는 업무 일지를 참조하여 Gil과 Choi [5]가 개발한 도구로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와 60개의 소분류(간병업무)를 말한다.

3) 간병업무 수행정도, 중요도

간병업무 수행정도라 함은 Gil과 Choi [5]가 개발한 간병업무항목을 실제로 행하는 간병업무의 수행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중요도는 간병인의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5].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13-043)을 받아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G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중 임의로 선정한 3곳에서 병원장 및 간호부장의 허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둘째,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

셋째,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넷째,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 .05, 중간수준의 효과의 크기(r) = .25, 검정력 ($1-\beta$) = .80, 그룹 수 = 4를 기준으로 분산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대상자 수는 180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200부 배포 하였으나 195부 회수되었고(회수율 98%) 회수된 195부 모두 본 연구의 자료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서면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서면 동의서는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사인이나 기호로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과 USB에 저장한 후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

3. 연구의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문항, 간병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 60문항, 간병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 60문항, 총 13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결혼, 종교, 최종학력, 총 근무 경력, 근무 부서, 간병인 활용 요구, 간호업무 위임판단의 수월성, 업무위임 이유가 포함되었다. 간병업무 수행정도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은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와 60개의 소분류(간병업무)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는 신체 청결 돕기, 침상 및

환의교환 돕기, 식사 돕기, 배설 돕기, 이동 돕기, 안위증진 활동 돕기, 의사소통 돕기, 기능증진활동 돕기, 투약 돕기, 배액관리 돕기, 관찰과보고 돕기, 감염관리 돕기, 임종간호 돕기, 응급상황관리 돕기, 일반관리 돕기, 안전관리 돕기이다. 60개의 소분류(간병업무)는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에 따라 신체정결 돕기 7개, 침상 및 환의교환 돕기 4개, 식사 돕기 2개, 배설 돕기 4개, 이동 돕기 5개, 안위증진활동 돕기 5개, 의사소통 돕기 3개, 기능증진활동 돕기 5개, 투약 돕기 3개, 배액관리 돕기 2개, 관찰과 보고 돕기 5개, 감염관리 돕기 1개, 임종 간호 돕기 1개, 응급상황관리 돕기 2개, 일반관리 돕기 4개, 안전관리 돕기 7개의 소분류(간병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1) 간병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및 지침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7] 및 실제 시범운영 병실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의 업무 일지 등을 참고로 Gil과 Choi [5]가 개발한 도구로 총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와 60개의 소분류(간병업무)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간병업무 수행정도 분석은 Likert 5점 척도로 ‘안 함’ 1점, ‘매우 자주’ 5점으로 구성되었다. 즉 간병업무의 수행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Gil과 Choi [5]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값은 .91였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값은 .89로 나타났다.

2) 간병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및 지침과 You와 Kim [7]의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실제 시범운영 병실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의 업무 일지 등을 참고로 Gil과 Choi [5]가 개발한 도구로 총 16개의 대분류(업무영역)와 60개의 소분류(간병업무)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간병업무 중요도 분석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 함’ 5점으로 구성되었다. 즉 간병업무의 중요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들이 간병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il과 Choi [5]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값은 .95였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값은 .90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기술통계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자가 52.8%로 더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45.6%였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s)	20~29	91	46.7
	30~39	65	33.3
	≥40	39	20.0
Marriage status	Single	103	52.8
	Married	92	47.2
Religion	Christian	60	30.8
	Catholic	35	17.9
	Buddhism	11	5.7
Education level	None	89	45.6
	College	94	48.2
	University	72	36.9
Total working period (yrs)	≥Master degree	29	14.9
	<5	67	34.3
	5~10 below	53	27.2
Work place in hospital	10~15 below	30	15.4
	≥15	45	23.1
	Medical part	93	47.7
Caregiver utilization	Surgical part	102	52.3
	Required	159	81.5
Delegating task to paid caregiver	Not required	36	18.5
	Easy	71	36.4
Reason of delegate task to paid caregiver	Difficulty	124	63.6
	Nurses work a lot	20	10.3
to paid caregiver	Lack of time and manpower	170	87.2
	Due to patient preference	5	2.5

최종학력에서는 전문학사가 48.2%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34.4%,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52.3%로 더 많았다.

간병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81.5%, '필요하지 않다' 18.5%, 간병인에게 간호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쉽게할 수 있다' 36.3%, '어렵다' 63.6%로 나타났고, 간병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87.2%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간병업무 영역별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병인의 16개 간병업무 영역에 따른 수행정도 및 중요도는 Table 2와 같다. 간병업무 영역별 수행정도가 높은 업무는 감염관리 돕기 4.71±0.45점, 식사 돕기 4.20±0.73점, 신체청결 돕기 4.18±0.77점, 이동 돕기 4.16±0.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정도가 낮은 업무는 일반관리 돕기 2.04±1.03점, 응급상황관리 돕기 2.30±1.17점, 임종간호 돕기 2.77±1.09점이었다.

간병업무 영역별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감염관리 돕기 4.71±0.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 돕기 4.24±0.75점, 식사 돕기 4.17±0.76점, 신체청결 돕기 4.16±0.73점 순은

Table 2. Nurses' Perception for Paid Caregivers' Task Performance and Importance (N=195)

Categories of paid caregivers' task	Performance	Importance
	M±SD	M±SD
Personal hygiene	4.18±0.77	4.16±0.73
Bed making and clothing	3.48±0.81	3.85±0.78
Eating aids	4.20±0.73	4.17±0.76
Excretion aids	3.94±0.72	4.02±0.74
Activity aids	4.16±0.77	4.24±0.75
Patient safety improvement	3.82±0.77	4.07±0.74
Communication	3.80±0.83	3.94±0.76
Functional improvement	4.00±0.79	4.15±0.75
Medication aids	3.82±0.88	3.91±0.85
Drainage aids	3.10±1.10	3.43±1.03
Observation and reporting	3.50±0.95	3.81±0.89
Infection control aids	4.71±0.45	4.71±0.45
Terminal care aids	2.77±1.09	3.21±1.10
Emergency aids	2.30±1.17	2.78±1.20
General management	2.04±1.03	2.61±1.14
Patient safety	3.65±0.85	3.92±0.80

Table 3. Nurses' Perception for Paid Caregivers' Task Perform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yrs)	20~29	3.59±0.49	0.01	.995
	30~39	3.58±0.46		
	≥40	3.59±0.66		
Marriage status	Single	3.55±0.50	1.22	.222
	Married	3.64±0.54		
Religion	Christian	3.47±0.42	1.96	.122
	Catholic	3.71±0.58		
	Buddhism	3.53±0.70		
Education level	None	3.63±0.52	1.53	.220
	College	3.57±0.52		
	University ≥Master degree	3.55±0.44 3.74±0.67		
Total working period (years)	<5	3.62±0.48	0.40	.750
	5~10 below	3.53±0.55		
	10~15 below	3.58±0.34		
	≥15	3.62±0.63		
Work place in hospital	Medical part	3.62±0.54	0.79	.433
	Surgical part	3.56±0.50		
Caregiver utilization	Required	3.67±0.48	4.61	<.001
	Not required	3.25±0.56		
Delegating task to paid caregiver	Easy	3.63±0.51	1.41	.162
	Difficulty	3.52±0.53		
Reason of delegate task to paid caregiver	Nurses work a lot	3.64±0.52	2.03	.134
	Lack of time and manpower	3.59±0.51		
	Due to patient preference	3.00±0.94		

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일반관리 돕기 2.61±1.14점, 응급상황관리 돕기 2.78±1.20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간병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67±0.48점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3.25±0.56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4.61, p<.001$). 그러나 연령, 결혼, 종교,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근무부서, 업무위임판단수월성, 업무위임이유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간병인 활용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87(±0.49)점으로 '필요

하지 않다' 3.57±0.58점 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3.17, p=.002$). 또한 간호업무 위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3.87±0.48점으로 '어렵다' 3.71±0.57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10, p=.037$).

논 의

본 연구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병인 활용 관련 특성에서 간병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81.5%가 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간병인에게 간호업무를 위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과 인력 부족을 87.2%로 꼽고 있었으며, 간호업무 위임 판단 여부에 대해 63.6%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간병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간호 업무의 일부를 간병인

Table 4. Nurses' Perception for Paid Caregivers' Task Import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yrs)	20~29	3.87±0.51	1.86	.158
	30~39	3.80±0.50		
	≥40	3.68±0.55		
Marriage status	Single	3.88±0.51	1.87	.063
	Married	3.74±0.52		
Religion	Christian	3.72±0.49	1.74	.160
	Catholic	3.89±0.46		
	Buddhism	3.62±0.73		
Education level	None	3.87±0.52	0.03	.976
	College	3.82±0.53		
	University ≥Master degree	3.81±0.49 3.79±0.55		
Total working period (years)	<5	3.92±0.49	1.71	.166
	5~10 below	3.74±0.55		
	10~15 below	3.82±0.49		
	≥15	3.72±0.53		
Work place in hospital	Medical part	3.78±0.53	-0.84	.404
	Surgical part	3.84±0.51		
Caregiver utilization	Required	3.87±0.49	3.17	.002
	Not required	3.57±0.58		
Delegating task to paid caregiver	Easy	3.87±0.48	2.10	.037
	Difficulty	3.71±0.57		
Reason of delegate task to paid caregiver	Nurses work a lot	3.83±0.50	0.50	.609
	Lack of time and manpower	3.81±0.52		
	Due to patient preference	3.52±0.54		

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어려운 결정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병인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12]에서 조사대상자의 91.0%가 간병인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 다른 연구[9]에서는 70.2%의 간호사가 '간병인이 있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13]. 간병인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1990년대의 간병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14,15]에서도 조사 대상 병원의 65.0%가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병원 203개 중 병원차원에서 환자에게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알선하여 활용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총 77.9%로 조사되었었다. 간병인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2006년 약 5,000여개의 간병인 협회와 더불어 간병 인력은 약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8].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평균 유료 간병인수는 총 42,906명으로 추정된다[8].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 입원 환자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16].

이처럼 간병인을 활용하여 간호업무를 위임하는 이유는 시간과 인력부족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Hwang [8]의 연구에도 간병인의 활동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족한 간호 인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17]에서도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업무 성과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며, 병원에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 인력이 많으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원 감염율, 욕창발생, 낙상 및 합병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다[18].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인력은 적정수준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인력현황에 대해 국가 간 비교 조사연구[19]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간호사의 비율은 한국이 6.0%

로 가장 낮았고, 스코틀랜드 38.1%, 독일 36.5%, 캐나다 35.2%, 미국의 34.4%, 일본 17.2%로 나타났다. 즉, 간호 인력의 부족은 노령 인구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같은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족한 간호 인력과 간호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병인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병인이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자인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간호업무 위임 판단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2.0%가 '간병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위임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위임 시 위임 업무 내용과 활동, 그리고 의사결정과 수행 전략 등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20].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 위임에 대한 갈등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위임에 대한 규정, 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과 중요도의 평균평점은 각각 3.59점, 3.81점으로 조사되어, 간병업무 수행정도 보다 간병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간병인 대상 선행 연구 [5]에서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간병업무에 대한 수행정도는 4.0(±0.4)점, 중요도 4.4(±0.4)점으로 제시한 결과와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정도과 중요도 보다 간병인 자신들이 간병업무를 수행정도가 더 높고, 업무의 중요도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업무영역에서도 감염관리 돕기, 식사 돕기와 신체청결 돕기, 이동 돕기는 간병인의 업무 수행정도과 중요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관리 돕기와 응급 상황관리 돕기는 간병인의 업무 수행정도과 중요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간병인에 의해 행해지는 간병활동 중 감염관리, 식사 및 신체청결, 이동 돕기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며, 동시에 이 업무 영역이 간병인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간호사협회[20]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업무 중 위임을 가장 많이 하는 간호행위로 위생 간호활동, 이동 돕기, 식사 돕기와 동일한 업무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Hwang [1]의

연구에서도 구강 간호, 세면 등 개인위생,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 자세 바꿔주기, 대소변 돕기, 침상 정리정돈, 식사 또는 음료수 먹도록 돕기, 침상에서 또는 침상 밖 환자이동 돕기 등의 업무는 연구대상자인 간호사들의 70.0%가 간병인에게 위임하여도 되는 업무라고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 [12]에서도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간병인의 업무 수행정도에서 세면 및 청결, 양치질, 대소변 돕기와 변기세척, 침상주위 정돈, 가슴기 적용, 환자의 휴식 및 수면 돕기, 식사 돕기, 체위변화 돕기 등의 순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McCloskey 등[21]도 감염관리를 위한 환경 관리와 이동 돕기는 50.0% 이상의 간호사가 업무 위임을 원하는 영역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병업무로 손 씻기와 같은 감염관리 돕기로 응답하였다. 선행 연구[5]에서도 감염관리 돕기 점수가 간병업무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간병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히 수행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손 씻기는 병원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이다[22]. 감염관리 돕기의 세부 간병업무는 손 씻기에 대한 것으로 간병인들이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간병 업무 중 일반관리와 응급상황관리 돕기는 간병 업무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23]에서도 위임하지 않을 간호업무로 응급간호가 79.0%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부분이다. 또 다른 연구[5]에서도 간병인 스스로 일반관리와 응급상황 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의 행정관리와 응급상황관리 돕기와 같은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병원의 행정업무와 응급상황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에서 간병인의 초기대응법이나 업무프로토콜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한 선행 연구[12]처럼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간병인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상황 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환자 간호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간병인 활용의 필요성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간병인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그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업의 의의는 병원 내에서 간병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활용한 결과, 환자 만족도와 함께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7]는 점이다. 간호사가 다른 간호 인력에게 일정부분의 간호를 위임하고 감독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24] 간호사와 다른 간호 인력의 직무만족도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25,26]. 따라서 간병인 활용제도를 시범사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7년부터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로 보호자 없는 병실이 확립되어 있고, 미국 역시 간병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120시간 이상 수료한 후 주정부의 관련 부서나 간호협회의 자격인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8].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간병인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교육체계의 미흡과 교육수준의 격차[4], 간병 인력의 국가공인자격 증제도의 미흡, 간병 인력의 복지제도의 미흡[27], 간병에 대한 용어의 다양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환자들에게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간병서비스를 간호 인력의 역할로 정립하여야 할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4]. 간병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시급히 전환하여 간호 체계 안에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간병전문 인력이 필요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미흡한 제도나 교육내용을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간병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간호 업무의 일부를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간병업무 수행정도 보다 간병업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병인의 업무영역에서 수행정도와 중요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업무로는 감염관리 돕기, 식사 돕기와 신체청결 돕기, 이동 돕기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간병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위임이 쉽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간병인들의 업무 수행정도와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별, 병원 규모별, 간호등급별로 추가연구를 통하여 간병서비스의 제공범위와 간병인의 교육 및 역할 규정을 위한 간호사의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병인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간호사의 표준 업무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Hwang N. Policies to ensure quality nursing and care services. *Labor Review*. 2006;6:70-75.
- SeonWoo D, Seok JE. Policy direction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2001; 15-4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ECD health at glance [Internet]. 2013. [cited 2013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
- Chu Y.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with emphasis on care assistants. *Labor Research*. 2011;21:67-108.
- Gil HH, Choi JS. Affecting factors of hospital caregivers on the of practice, knowledge, and importance of work under no guardia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2;21(1):55-65.
<https://doi.org/10.5807/kjohn.2012.21.1.55>
- Oh JJ, Lee HJ, Choi JM, Kim CM. Current situation and reform scheme for personal care attendants (PCAs) in workers' accident medical corpora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07;16(2):222-231.
- You SJ, Kim JH, Jo SH, Choi YG, Kim YM. A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nursing care improvement.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8 August. Report No: 2008-79.
- Hwang N. An analysis of the debates on introduction of public caregivers' services in acute medical cente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70:66-71.
- Kim HS, Kim SY, Park MS. A study on occupational care diver though nurse's experienc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994;5(2):216-226.
- Kramer BJ, Barker JC. Ethnicity in the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994;9(4):403-417.
<https://doi.org/10.1007/BF00975007>
- Kiyak HA, Hooymann NR. Ag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999;1(1):56-66.
- Jang OJ. A study on the job activity of caregiver in general hospital nurse. *HyeJeon Journal*. 2003;21:429-454.
- Kwon J, Yang M. A job analysis of acute care hospitals' formal caregiv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3; 11(10):639-651.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0.639>
- Song MS. A study on the care of caregivers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1992.
- Hwang N, Ko D.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caregiver utilization in general hospital (MONO11999-06904).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Report No.: 1998-07
- Sapountzi-Krepia D, Lavdaniti M, Psychogiou M, Arsenos P, Paralikas T, Triantafylidou P, et al. Nursing staff shortage and in-hospital informal care in an oncology hospital in Greece: the nursing staff's perceptions. *International*

-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8;14(3):256-263.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8.00688.x>
17. Ko YK, Kim BJ. An analysis of nurse staffing level and nursing performance in the general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8;14(4):413-420.
 18. Aiken LH, Clarke SP, Sloane DM, Sochalski JA, Busse R, Clarke H, et al. Nurses' reports on hospital care in five countries. *Health Affairs*. 2001;20(3):43-53.
<https://doi.org/10.1377/hlthaff.20.3.43>
 19. Lee A, Choo M, Kwak J. A search for the reality of hospital staff and the new solution in view of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Seoul: Korean Federation of Patient Community,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Workers' Union; 2011.
 20.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rinciples for delegation [Internet]. 2013. [cited 2013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nursingworld.org/principles>.
 21. McCloskey JC, Bulechek GM, Moorhead S, Daly J. Nurses' use and delegation of indirect care interventions. *Nursing Economic*. 1996;14(1):22-33.
 22. Garner JS. Guideline for prevention of surgical wound infections, 1985.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1986;14(2):71-80.
[https://doi.org/10.1016/0196-6553\(86\)90059-3](https://doi.org/10.1016/0196-6553(86)90059-3)
 23. Yom YH. Analysis of the nursing interventions performed by hospital nurses using N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9;29(2):346-360.
<https://doi.org/10.4040/jkan.1999.29.2.346>
 24. Vroman K, Morency J. "I do the best I can": caregivers' perceptions of informal caregiving for older adults in Beliz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011;72(1):1-25. <https://doi.org/10.2190/AG.72.1.a>
 25. Çelik S, Hisar F. The influence of the professionalism behaviour of nurses working in health institutions on job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12;18(2):180-187.
<https://doi.org/10.1111/j.1440-172x.2012.02019.x>
 26. Corazzini KN, Anderson RA, Rapp CG, Mueller C, McConnell ES, Lekan D. Delegation in Long-term Care: Scope of practice or job description?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2010;15:Manuscript 4.
 27. Lim J. Reality and quality improvement of care activities at convalescent hospital. *Monthly Welfare Trends*. 2013;175:49-55.